

# 한반도평화는 세계평화의 주춧돌

## 미 상원외교위에서의 인사말

1981년 2월 2일

「퍼시」위원장, 귀빈 여러분!

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즐겁게 생각하며, 본인을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.

미국 상원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각별한 이해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음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지원과 한국민의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양국은 지금 상호 유익한 관계를 가진 성숙한 동반자가 되었으며, 이는 세계와 세계평화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믿습니다.

동북아시아는 전략적으로 지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. 우리는 이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간의 전략적 균형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으며, 이 점 우리의 특별한 경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

한·미·양국은 극동안보체제 속에서의 평화수호를 위해 지극히 중요한 위치에 함께 서 있습니다.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깨어지면 세계평화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.

우리 한국민은 귀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 오늘 본인은 아시아의 안보를 위한 한국민의 결의가 확고불변한 것임을 약속드립니다.

우리 한국민은 귀국과 동일한 이념과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결의는 확고합니다.

최근 북한은 한반도 평화장착을 위한 남·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간의 상호방문 제의를 거부하였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본인은 계속할 것입니다.

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두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평화의 주춧돌이기 때문입니다.

감사합니다.